

의정부시 의회소식

Uijeongbu City Council

제39호



의정부시의회



완화삼(玩花衫)

-목월에게-

조지훈

차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 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 많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제39호

의정부시 의회소식

Uijeongbu City Council

CONTENTS

SECTION I
의정마당

- 06 발간사
- 08 의정부시의회 원구성 현황
- 10 상임위원회 소식
- 14 회기별 처리안건
- 18 5분 자유발언
- 32 건의안 및 결의안

SECTION II
의원마당

- 38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
- 42 의원 재능기부 현장
- 44 모의의회 경연대회
- 48 의원동정
- 50 의원 정기연수
- 51 의원글마당
- 54 의정포토
- 57 수상소식
- 58 언론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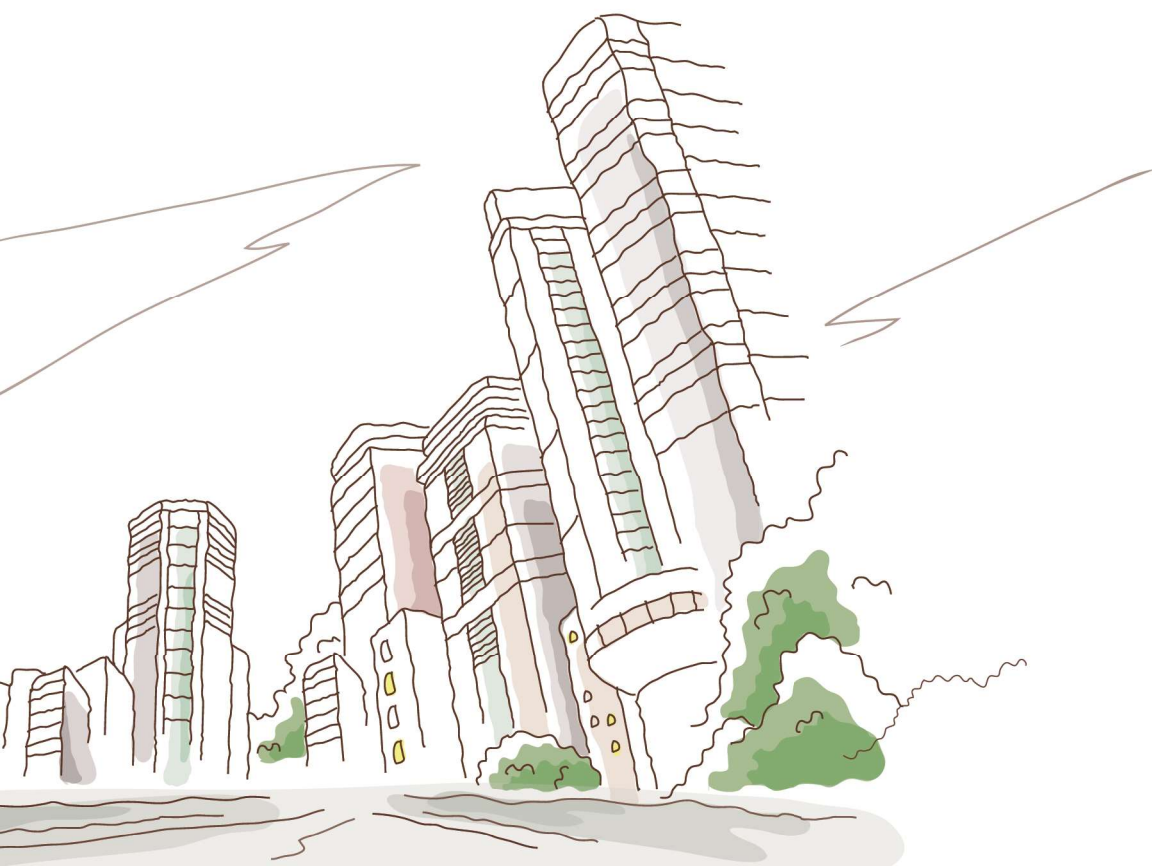
SECTION III
정보마당

- 62 의정부시의회 소개
- 64 의원 홈페이지 현황
- 65 의정부시의회 카카오톡스토리
- 66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



의정부시의회





발행인
최경자(의정부시의회 의장)

편집인
이우복(의회사무국장)

발행처
경기도의정부시의회

제작부서
의회홍보팀
팀장 임우영
담당 우승범

주소
우편번호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20

팩스
031-828-2525

홈페이지
www.ujbcl.go.kr

디자인
동심원(031-852-9333)

의정부시 의회소식 무료구독 신청안내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 의회소식지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의정부시의회

전화
031-828-2520

팩스
031-828-2525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정부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된지도 어느 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간의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자 이번 제39호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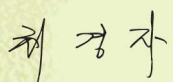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지난 1월, 불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시의 전반적인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하여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고자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개원후 지난 1년간 우리 13명의 시의원들은 각종 제도개선에 앞장서며, 시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을 꼼꼼히 따져 책임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께서 우리 의회에 부여해주신 역할을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는 물론, 자유학기제 현장진로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분기별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고 우리 의원들은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43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의회상 구현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의장

가선거구
(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

최경자 의원



부의장

나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2동)

구구회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라선거구
(송산1·2동, 자금동)

박종철 의원



부위원장

나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이원 의원



위원

가선거구
(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

조금석 의원



위원

나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일봉 의원



위원

다선거구
(신곡1·2동, 장암동)

정선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다선거구
(신곡1·2동, 장암동)
권재형 의원



부위원장
다선거구
(신곡1·2동, 장암동)
정선희 의원



위원
가선거구
(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
조금석 의원



위원
가선거구
(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
장수봉 의원



위원
다선거구
(신곡1·2동, 장암동)
임호석 의원



위원
비례대표
김현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라선거구
(송산1·2동, 자금동)
안지찬 의원



부위원장
나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일봉 의원



위원
나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2동)
구구회 의원



위원
라선거구
(송산1·2동, 자금동)
박종철 의원



위원
나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이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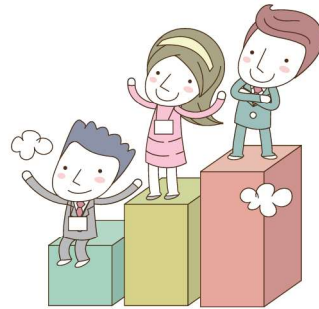
위원
비례대표
안춘선 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철)는 의회 회기일정 논의를 비롯, 기타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가졌다.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부문별 예비심사를 마쳤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제 240회 임시회에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자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을 채택했다.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반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문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40회 임시회부터 제244회 임시회까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하였다.

또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공립

어린이집 등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위원장들과 각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반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문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40회 임시회부터 제244회 임시회까지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등 15건의 조례등을 처리하였다.

지난 초봄 해빙기에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현장 관리 실태 등을 대형공사장, 절개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여 점검함으로써 재해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후 있을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비회기중에도 주민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장 방문, 민원현장 등 시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재형, 조금석, 김이원, 정선희, 임호석 의원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금번 심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1조 127억 5,07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037억 2,7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07억 3,781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총 6건의 3,7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조사특별위원회

2015년 1월 30일 구구회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2월 2일 의결되었고,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였다. 조사특위는 현지점검 및 증인 증언 청취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총 17건의 시정조치를 지적하여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회기별 처리안건

2015년도에는 1월 13일 제2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과 주요 안건에 대해 살펴본다.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회기별	계	유 형 별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	기타		
		제정	개정	폐지									
계	72	3	28	4	1	2	2	5	9	-	11	-	7
제240회	6	-	-	-	-	2	-	2	1	-	1	-	-
제241회	11	-	1	3	-	-	-	2	2	-	2	-	1
제242회	12	1	5	-	-	-	1	-	2	-	2	-	1
제243회	13	2	4	1	-	-	-	-	2	-	3	-	1
제244회	30	-	18	-	1	-	1	1	2	-	3	-	4

제출 및 의결 유형별 처리현황

회기 구분	제 출				의 결				계류	철회	폐기
	계	의원	위원회	시장	계	원안	수정안	부결			
제240회 ~ 제244회	65	23	3	39	65	58	6	1	-	-	-

의원발의 안건 현황(제240회 ~ 24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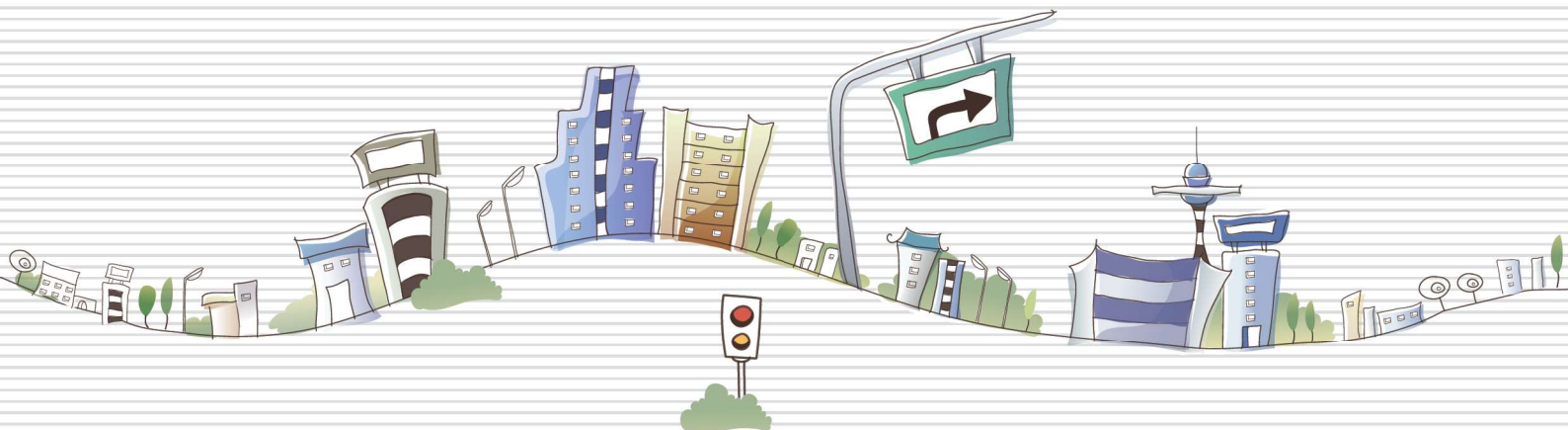
의원명	회기명 (기 간)	발의안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비고
정선희 의원	제244회 (5.18.~5.29.)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_조례 전문 내용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례 (개정)

주요안건 처리내역(제240회 ~ 244회)

연번	회기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소관 위원회	처리결과	의결일시
1	제240회 임시회 (2015.1.1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박종철 의원 외 12명	-	원안가결	2015.1.13.
2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 금 지급보증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1.13.
3	제241회 임시회 (2015.2.2~2.9.)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구회 의원 외 12명	-	원안가결	2015.2.2.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2.9.
5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2.9.
6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2.9.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2.9.
8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안지찬 의원 외 12명	-	원안가결	2015.2.9.
9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	원안가결	2015.2.9.
10	제242회 임시회 (2015.3.18. ~3.20.)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조사특별 위원회	조사특별 위원회	원안가결	2015.3.18.
11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가결	2015.3.20.
12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3.20.
13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3.20.
14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수정가결	2015.3.20.
15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3.20.
16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3.20.
17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3.20.

연번	회기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소관 위원회	처리결과	의결일시
18	제243회 임시회 (2015.4.15. ~4.17.)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	원안가결	2015.4.15.
19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4.17.
20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4.17.
2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가결	2015.4.17.
22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가결	2015.4.17.
23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4.17.
24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가결	2015.4.17.
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중 합계획 변경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4.17.
26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18.
27	제244회 임시회 (2015.5.18. ~5.29.)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 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사특별 위원회	조사특별 위원회	원안가결	2015.5.18.
28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 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조사특별 위원회	조사특별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29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장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수정가결	2015.5.29.
3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2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3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4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5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연번	회기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소관 위원회	처리결과	의결일시
37	제244회 임시회 (2015.5.18. ~5.29.)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8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39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0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1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2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자치행정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3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4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48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	도시·건설 위원회	원안가결	2015.5.29





조금석 의원

_ 2015년 2월 2일(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제 :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가선거구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의정부3동 도

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크나큰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사고수습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화재피해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의정부시 유사 이래 역사에 기록될 대형 화재 사고를 지켜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시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취약장소들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등 대형화재사고로 수십여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쳐 화재안전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때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우리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 인화성 외벽 단열재, 건물 간 이격거리,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그리고 소방 활동에 영향을 미친 불법주정차 문제 및 불법 방 쪼개기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사시설 방문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마련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시의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미흡하나마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재취약장소들을 방문해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수의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제일시장의 경우 600여개가 넘는 점포와 노점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해 소방안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층 점포들은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화기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개인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겨울철 찬바람을 막기 위해 인화성이 강한 비닐로 출입구 쪽을 막아놓아 화재 발생시 불이 쉽게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방 호수함은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지만 자물쇠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소화전 앞에는 물건을 쌓아 놓아 유사시에 사용이 불가능해 보였으며 소방안전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취사를 위한 주방시설과 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시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셋째, 지금 한창 조성중인 민락2지구 단독주택단지 내 다가구 신축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락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법적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최대 4가구로 제한했으나,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많게는 12가구 까지 ‘방 쪼개기’를 해 놓아 향후 난시조성 완료시 극심한 주차난뿐만 아니라 이번 의정부 3동 화재에서 드러났듯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울 개연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시민여러분들도 바라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원

_ 2015년 3월 20일(금)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제 :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심히 우려되는 걱정과 의혹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 호원동 51-1번지 일원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던 ‘회룡역 공영주차장’이 있

5분 자유발언

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및 주차공간 제공’, ‘주차면수 증대 및 저렴한 요금유지로 수익성 확보’, ‘의정부시 주차공급률 저하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목적에 본 사업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철거되었지만 지난 해 이전부터 의정부역 웨딩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했던 ‘캠프 홀링워터 내 북측 임시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장 내 입주하는 상가시설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건립입니까? 공공성은 퇴색되고 특정인, 특정상인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건립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지 않은 3층~6층의 주차면수는 170면, 사실 이마자도 근린생활시설 입주에 따른 고정 이용 주차량을 고려한다면 3분의 2정도 수준인 110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그 정도 규모라면 굳이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 없이 충분히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추진이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 실례로 지난 2010년도 준공된 구)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한 ‘의정부1동 입체식 주차장’은 3층 건물에 주차면수 7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당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현 기준으로 25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물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주차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게 변동 책정될 것인지 등 과연 공영 환승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의회에 보고된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보고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의를 전당’인 이 자리를 빌려 본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업에 섭사리 그 일련의 절

차를 무시하고 새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인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여건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지, 혹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춰진 사업인지 등 민간투자사업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처음부터 숙아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것들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강력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1호선 회룡역은 향후 KTX, GTX 환승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경원선 내에서도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은 지하로 건설하고, 상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의 변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다시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굳이 신곡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 하겠다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어떠한 특혜의혹이나 사업추진상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련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검토를 전제로,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의회와의 소통 있는 협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언하고 당부한 내용들이 무시된다면, 동료의원들과 상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감사 청구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진실을 밝히는 데에 남은 의원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구구회 의원

_ 2015년 5월 29일(금)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제 : 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의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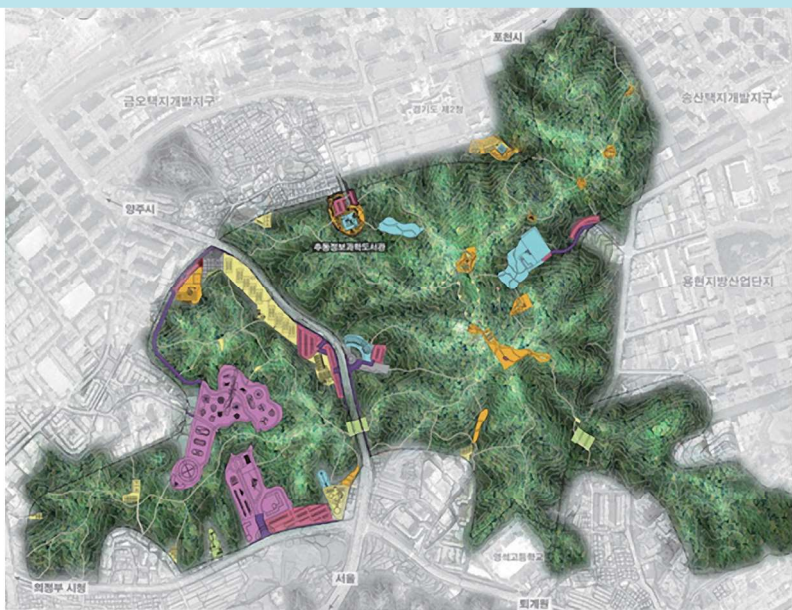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자료수집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절차 등 추진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중이라 자료 공개 불가’라는 한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현재의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음을 관계부서장과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어려워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에게 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전체 계획된 공원시설 중 대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 공원 조성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사안이 민자로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수십 년간 추진과 사



업 무산 등을 되풀이 해 오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 이와 같이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개발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서류제출요구’하고,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까지 하였으나, 소송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의 제출과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견제 속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중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며, 이는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진행하는 민자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에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계의 객관성, 사업자의 자기자본, 사업추진실적 등 민자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통한 사업의 오류, 사업의 부도, 사업자의 신용도 등 사업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관련법률 및 지침상 민간사업자 제안시 사업자

5분 자유발언



의 자본력, 사업능력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검토가 불가'라고 하며, 사업비만 예치했다고하여 이를 검증하지 않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본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검증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비 예치의 자금 성격이 사금융인지, 자기자본인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허가만 받고 사업권을 팔고 가는 이른바 먹튀 업체일수도 있으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보고 등 사전 민자개발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었으며, 소유자들에게도 사전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러한 사업에 어떻게 지주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행정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공원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따른 법적인 주민설명회가 2015년 5월에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민자사업은 특혜사업인에는 분명합니다. 그 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시에게도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거기

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수천억원을 챙겨가는 사업임에도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비율만 법에 정해졌지 개발이익 등에 대한 배분 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민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전문적인 검토 기관에 사전 검토를 해야 함에도 유독 본 사업은 이러한 과정이 왜 생략하고 진행하는지 의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히 우리 시 공원조성사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체인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누가 봐도 정말 잘 조성된 명품 추동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며, 만약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조치를 취하여 본 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명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원

_ 2015년 4월 15일(수)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제 : 가평역광장 환경개선 촉구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시의원 장수봉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의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통해 가평역광장

을 시민에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평역은 1987년 북부역사 설립 이래 2005년 전철고가화 이후 일일 약 1만 6천여 명의 이동인구를 가진 가평동과 의정부1동의 관문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의정부여고, 의정부여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

5분 자유발언

역광장주변을 살펴보면 시설노후화, 무질서한 도로불법 점유, 어두운 야간조명, 상습취객의 상주와 잦은 폭력사건 발생 등으로 이 지역은 타 지역의 역광장과는 달리 환경이 불결하고 치안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변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외관적인 여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능역 철도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상설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노숙자를 증가시키고 그중 일부는 상주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료급식은 매우 중요한 자선활동이자 긴급구호활동이고, 이 지역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요긴한 생계수단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주변환경이 슬럼화되거나 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근본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본 의원이 며칠전 야간 점검시 느낀 바, 배식장소는 전체적으로 본 의원조차 불안을 느낄 정도로 어둡고, 노숙자용 폐지더미가 쌓여있으며, 취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백주 대낮에 역광장에서 노숙자간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흥기를 휘두르는 싸움이 벌어졌고, 얼마전 가능역 인근 주차장 옆에서는 노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주민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KBS 공중파를 타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가능역 광장과 철도 아래 땅은 코레일의 부지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곳은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곳이기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 반드시 이 가능역광장을 새롭게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회룡역사도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남부통로를 만들고 있고, 의정부역사 또한 민자역사 준공과 함께 반환공여지를 공원화 했고, 또 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가능역은 반드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문화가 흐르는 소통의 광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과거 60여년간 군사도시로 묶여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찬 행복특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

니다.

안병용시장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835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만, 이 정책 또한 주로 중랑천 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듯이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과업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집행부 소관 책임부서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실천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 리모델링 용역과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무료급식장소 이전 여부와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대체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가능역 광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코레일이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사단법인 119한솔나눔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협력기구를 만들어 상생 발전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째, 역광장과 인근 공영주차장, 그리고 행복누리공원을 포함한 의정부시 소재 전 공원의 어두컴컴한 야간 조명을 즉시 환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가능역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취약계층분들의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과 무한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로부터 따가운 지적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유보되거나 안전과 행복추구권이 훼손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호선 전철역을 품고 있는 많은 지차체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역광장을 교통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중심으로의 리모델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가능역에 반드시 명품역광장과 문화거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역광장은 늘 깨끗하고 쾌적하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주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제공해 주는 장소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원 의원

_ 2015년 5월 29일(금)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제 : 행정동과 관할구역 불일치 개선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김이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집행부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고개를 가우뚱

5분 자유발언



하게 하는 변화하지 않은 곳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그 중 하나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동·관할구역 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현안사항과 조속한 정비작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녹양동 인근에 있는 입석마을은 녹양동이 아닌 가능1동에서 관할합니다. 또한 마사회 인근과 가능초교 주변 일부지역은 의정부2동이 아닌 가능2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정부중학교 인근 남일주택 등 일부지역 역시 가능1·2동과 의정부2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에서 관할하여야 할 하동천 마을은 녹양동에 편입되어 있는 등 의정부시 15개동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얼마 전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합쳐지면서 행정동 개편이 불가피하오니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거환경이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참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미군기지 반환 등 각종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고, 의정부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하며 지금이 적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편의상 일반적으로 어느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라도 대부분의 민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옆집이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서

로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또한 투표를 위한 선거구, 인감등록이나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도 관할구역이 달라 각각 저마다 생활하는 행동반경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일종의 이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행정동과 그 관할구역에 대한 통합·분리’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어, 자치법규 개정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제도 마련’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우편번호’제도를 저울 삼아 국가기초구역제도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도로명 주소 시행과 더불어 경찰, 우편, 통계, 학교, 소방 등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것으로서 행정동, 법정동, 우편번호 등의 상이한 단위를 사용해오던 것을 통일된 번호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우리 시 실정을 감안, 적용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정비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혹여나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해 주실 것과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시 의회와의 소통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봉 의원

_ 2015년 5월 29일(금)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제 :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의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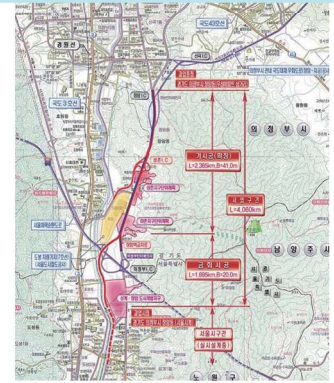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포함한 광역도로

사업 국비 지원 기준에 대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을 통한 효율화와 교통기본권 등 교통분야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국가 전반에 대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언하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2개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국가교통망 계획의 일부로 의정부시라는 자치단체만의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자치단체 일개 사업으로 취급받고 있는 듯합니다.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지원 기준이 총사업비의 50%’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원 기준을 근거로 1,000억원 이내로 국비를 제한·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 3,850억원 중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한 도비 지원은 2011년도에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와 의정부시를 포함한 7개 시·도는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 제한 철폐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지침이라는 것은 관계법규를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특성과 이에 따른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내부의 관계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사실상 법규에 어긋나는 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지침은 본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침이 마련된 시기가 2008년 10월인 것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다면, 시점 대비 2015년 4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약 14.5% 상승하여 1,145억 원 정도가 되므로 국가 지원 기준 역시 이를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사업추진 지연 및 장기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주민 불편 가중을 최대한 줄이고자, 지방채 발행이라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시비 부담인 잔여사업비 292억원 중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결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를 전당’인 이 자리를 빌려 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포함한 광역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 제공과 그에 수반되는 국가교통망 확립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고양되어 국가 발전의 한 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교통망 확립과 미비된 도로정비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 안전 등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계획된 2017년 12월말 내로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국가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법이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 지침을 관계법률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는 바, 다시 한 번 이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_ 2015년 5월 29일(금)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제 : CCTV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 신곡1, 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자치행정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요즘 범죄는 지능화, 스피드화, 흉폭화 되었고, 무동기 범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대책 또한 과거에는 범인 검거가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 CCTV는 검거와 예방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구이며 정책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의정부시는 현재 용도에 따라 방법용 CCTV 1,146대, 차량번호인식 36대, 도시공원 100대로 총 1,282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능동내 절도사건이 발생되어 방법CCTV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방법 CCTV의 고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시 CCTV관리 실태를 조사해보니 최초 설치부터 최근 설치된 CCTV의 화소는 41만화소로 식별 가능한 최소 200만 화소에도 못미쳤으며, 이는 설치 증설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식별조차 어려운 CCTV를 왜, 시민의 많은 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부터 최근 2014년까지의 노후 교체된 CCTV는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동일한 41만 화소로 교체되어 CCTV의 기능과 목적이 위배된 행정시스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CCTV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약 12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8억6천만원의 본예산과 노후 교체를 위한 1차 추경예산을 약 5억이상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교체 CCTV는 내구연한인 7년에도 못미치는 3년이 채 되지않는 CCTV이며, 화소가 낮다는 이유로 올해 재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방만한 행정이며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재 교체시 충분히 향후를 고려하여 업그레이드 된 사양과 시스템이었다면 의정부 시민의 혈세는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가 우리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구심을

갖게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과 목적과는 맞지않은 무분별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은 시정되기 힘든 일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보호와 초상권에 대한 개인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으로는 권고 사항이긴 하나 새로 교체될 시스템이라면 vpm 프로그램, 마스크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이 시예산 낭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의 경우 용도별 분리된 CCTV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여러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CCTV의 활용 용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 설치될 CCTV통합관제센터도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제한된 기능만 담당하는 낭비성 CCTV가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협업의 시스템으로 CCTV 사용의 고유 목적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유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기는 최신형일수록 기능이 향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CCTV는 전과 동일한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이유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CCTV 활용을 통한 범인 검거 및 예방은 해가 거듭할수록 급증하며, CCTV의 중요성은 거듭 얘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가 행복도시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다시한번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2015년 1월 13일(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종철 의원외 12명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물과 인근 주택에는 248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로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중환자들이 많아 사망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전소 등으로 총132억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접수된 이재민은 296명에 이르는 등 이재민들은 현재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한겨울 추위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피해주민 긴급지원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수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별도의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과 주거비용, 그리고 부상자 의료지원비 마련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주민과 힘을 합쳐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되찾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2015년 2월 9(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안지산 의원 외 12명

2015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크게 4가지 분야를 담고 있는데, 그 중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지원”에 관한 사항, 특히 각종 관련법규 개정과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지원이 총 동원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총 5조원의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에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우리 의정부시는 그동안 바라왔던 상생발전의 기대보다는 깊어만 가는 차별 정책에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이번 투자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그동안 정부에서 수립 및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관련법규와 정책만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번 발표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재 우리 시의 불편한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정부에서조차 본 사업이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과 각종 규제 등으로 유기적인 개발이 어려워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투자회복의 지속적 필요성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개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집약적 지원 대책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등 3가지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특히 평택 지역은 대규모 지원을 전개한다는 반환공여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에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우리 의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벤치마킹에 박차를 가하였고, 자체적으로는 행정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의정부란 만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해왔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수회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으나, 사실상 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타개해야만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시는 그 해답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상생발전이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국토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 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주도하의 종합적인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그 밖에 관련 특별법상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관련법규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해당 개발사업에 한하여는 지방채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채 이자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입지로 인한 지방세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정보전제도를 보완하고, 특별교부세 배분요건 확대를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년 2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2015년 5월 18(월)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구구회 의원 외 12명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406명, 사망자 5명, 부상자 129명이 발생한 의정부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일 즉시 구성·운영하여 ‘선지원 후검토’ 방침으로 초기 1개월분의 긴급 생계 및 주거,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애민(愛民)이념과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주소지,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급보증을 시행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의정부시의회 전 의원은 화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민안전처와 경기도 등에 제출하고,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정부3동 화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사실상 시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사고 수습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규모와 그 대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지난해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역인 안산·진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의정부3동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어느 자치단체간 간에 신속한 현장대응과 구호에 앞장서야합니다. 지역 구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재난구호에 필요한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인데, 우리 의정부시의 경우는 법적기준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마련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 투입의 어려움으로 사회재난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고, 설사 재정 투입의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재해와 역운이 있으면 불에서 구해내고 물에서 건지기를 마치 자기 집이 불타고 자신이 빠진 듯이 하여, 조금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막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재해가 이미 물러가면 백성들을 쓰다듬고 안정시켜 모여



살게 해야 할 것이니, 이 또한 목민관의 인정(仁政)이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산 선생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재난 지원제도 마련의 해답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 합니다. 경기도 역시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지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재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해결 능력을 벗어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지역별·상황별 재난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외 ‘(가칭)재난피해지역’을 5단계(1~5, ‘1’이 특별재난지역 바로 아래 단계)정도로 구분·선포하여 최소한이라도 정부 재정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난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심하게 겪고, 재난구제 행정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을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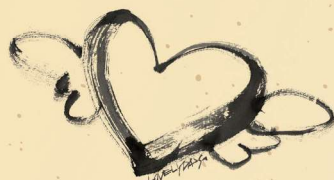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현장
속으로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



따뜻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원봉사단을 구성,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의장 최경자)은 지난 12월 30일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가 연탄나르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의원 및 직원 3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산동에 소재한 기초생활수급자 5가구에 300장씩 총 1,500장의 연탄을 함께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연탄을 배달했다.

시의원들은 이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추운겨울을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연탄을 날랐다.

최경자 의장은 “어두운 곳에서 희망을 먼저 살피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번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축석고갯길 새봄맞이 대청소
2015년 1/4분기 자원봉사활동
2015. 3. 9(월)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

작은 손길로
큰 사랑을 전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의장 최경자)은 지난 3월 9일 관내 청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의원 및 직원 30여명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일동 자일약수터부터 호국사까지 흑한기동안 투기된 각종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수거하였다.

시의회 자원봉사단은 축석고갯길 약 1.5km를 이동하며 하천변 및 산 등의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현충탑 진입로 불법 광고물 정비, 등산로 주변 오물·폐비닐·폐농자재 등을 함께 치우며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지난 2013년 3월 구성된 시의회 자원봉사단은 의원 및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매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 제11회 의정부시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단체부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의정부시의회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시의회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찾아주기 위한 현장진로체험을 의회 방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의정부서중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천보중학교 학생 18명과 의정부중학교 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본 프로그램은 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모의의회 체험, 1분 자유스피치, 의원과의 만남, 시설견학순으로 진행하며, 특히 의원과의 만남시간에는 학생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의원 1명이 멘토가 되어 진로탐색 지원 등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회, 제13회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대상 의정부호동초교 최우수상 동암초교 우수상 동오초교·발곡초교·신동초교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에서는 6월 26일 ‘제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새말초등학교를 비롯한 14개 초등학교에서 152명이 참가했으며, 경연주제인 『초등학생이 꿈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어린이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사회문제를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어른들이 상상치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최경자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하여 어린이, 지도교사, 학부모 등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으며, 발표가 끝날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경연 결과는 대상에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한 환경교육 실천 조례안”으로 의정부호동초등학교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은 동암초등학교, 우수상에는 동오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참가학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MVP에는 동오초등학교의 이상진 학생이 선정되어 축하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2003년 10월 ‘청사이전기념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토론문화를 배움으로써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호동초등학교 지도교사 이진경



모의의회 주제로 결정한 환경교육 관련 자료들을 찾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의정부와 주변 환경에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지나치던 의정부의 환경과 자원회수 시설 등에도 더 많은 눈길이 갔으며 학교 환경정화활동을 할 때나 교실의 쓰레기들을 정리할 때도 의무가 아닌 책임으로 다가왔다.

최선을 다한 우리 호동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기쁘다. 열정과 노력으로 결과 이상의 과정을 보여준 아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정부 시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 따뜻한 응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려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동료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무안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의정부호동초등학교 5학년 박예빈



‘대상’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자 추억이었다. 아직도 서로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흐뭇한 미소를 띄운다. 소감문을 작성중인 나도 지금, 의회의 추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하늘 빛깔 날개를 단 천사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의정부호동초등학교 6학년 김도연



어린이 모의의회라는 대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능력과 부족함을 동시에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꿈에 한발 더 가까워 질수 있었던 것 같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호동어린이가 되었으면 한다.

의정부호동초등학교 6학년 김다인



대상을 받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모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고마웠고 두 달 여를 가르치시느라 애쓰신 선생님 생각도 많이 났다. 이번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다.

의정부호동초등학교 6학년 이한결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18분 안에 끝내야 하는 1분 1초가 황금 같은 시간 안에 우리는 17분 40초에 경연을 마쳤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시상식 시작!! 의장님께서 우리학교가 대상을 받았다고 발표한 순간 우리는 와~~하는 함성과 함께 서로 손잡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졸업을 한 형·누나들과 한 약속도 지켰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고 뿌듯했다.

동오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연영



이번 '제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는 지도교사인 저를 포함한 10명의 참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준비부터 대회 참가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후기를 쓰는 것이 홀가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요즘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다 방과 후에도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워낙 바쁘다. 그런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서 시나리오를 읽히고 연습시키는 활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본인들이 동오초등학교의 대표로 모의의회를 참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원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늦은 오후에 남아서 연습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힘을 내서 더욱 열심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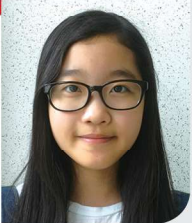
이번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도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정부시의회의 의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암초등학교 6학년 김윤희



모의의회 당일! 정말 떨렸다. 몇 번씩 암기하고 몇 번씩 되뇌었는데, 실전에서 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2등을 해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났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모의의회에 참가했던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동암초등학교 6학년 노가은



시의회에 직접 가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았다.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더 재미있었다. 또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사용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을 해 보니, 학교에서 연습한 것보다 더 실감이 나서 긴장도 밀려왔다. 열심히 했는데, 대상을 받지 못하고 최우수상에 그친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상과 상관없이 모의의회는 우리에게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암초등학교 5학년 허현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여함으로써 6학년 언니, 오빠들, 친구들과 호흡도 맞춰보고 연습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의의회 당일 다른 학교들의 경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또 모의의회를 통해서 시의회도 구경해보고 의장님, 의원분들 등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았다. 평소에는 입지않는 옷들을 입어보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도 해보고, 모두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너무 좋았다.

의정부효자초등학교 6학년 김지원



모의의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공동체인 의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회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값진 경험을 했다.



1



2



3



4



5



6



7

- 1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점검
- 2 조사특위 현장점검
- 3 사회복지시설 방문
- 4 사랑의 연탄 배달
- 5 송산2동 업무보고 청취
- 6 제일시장 현장점검
- 7 메르스 예방캠페인



- 8 청소년 현장지도
- 9 설명절 방문
- 10 가족사랑 이음센터 개수식
- 11 안전시설 점검
- 12 6월의 크리스마스 참여
- 13 송산1동 업무보고 청취

의정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의원 정기연수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의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문교육 및 소양(직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지역특화사업지의 시설견학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실무능력 향상과 의원상호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사례중심의 전문적 의정활동 기법을 습득하고자 제주대 김동욱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결산 심사기법 및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또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길남 지도홍보팀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았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홍콩 및 타

이완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우리 시의 행정 업무에 접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및 폭넓은 전문 습득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홍콩의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타이완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선진사례를 습득하였다.



2015년 제13회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마치며



박종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금요일 우리 의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
장에서는 제 13회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열렸습
니다. 우리시 관내 14개교 15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경
쟁을 펼쳤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개원하던 1991년 4월 15일은 풀뿌리 민
주주의 지방자치를 새롭게 시작하던 날입니다. 그리고 2003
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
고, 미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토양에 거름을 주는 마
음으로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취월장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별 주제선정내용이
더욱 발전하고, 대회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실로 의젓할
뿐 아니라 믿음직스럽기까지 합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초등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하여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과 같이 절차대로 토의하고 검토하는 등 의사결정까지 하
는 것입니다.

경연 대회에 주어진 시간은 20분이며, 그 중 발표시간은
18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위원 5명이 꼼꼼히 지켜
보며 점수를 줍니다. 그야말로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경연이 시작되죠. 그리고 끝이 나면 안
도의 한숨을 쉬며 서로 격려합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루 종일
불꽃 튀는 경연대회를 지켜봤습니다. 한 학교가 경연대회
에 참가하여 발표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오페라를 완
성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 학생을 선발하고, 연습시키는 준비과정이 어찌 힘들
지 않았겠습니까?

총지휘를 맡으신 교장선생님, 직접 학생을 지도하고 가
르치신 지도 교사님, 그리고 단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
로 파이팅을 외치며, 발표하고 열띤 논쟁 속에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의정부시의 미래는 밝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
방 자치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원고지 없이 대사를 모두 외워서 발표를 합니
다. 깜짝 놀랐고 그 표정, 그 눈빛 하나 모두가 우리에게 희
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치열한 경연대회가 모두 끝나고 성
적 발표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든 학교마
다 대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두 손을 함께 꼭 잡고 기도하는 지도교사님과 학생을 바
라보면서 애처롭기까지 하고, 고맙다는 마음에서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합니다. 자랑스럽어요. 여러분.

꼭! 우리 의정부시의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되어주세
요. 함께 몇 달을 수고해 주신 지도교사님, 학생 여러분 고맙
습니다.

끝으로 본 대회를 주관해주신 최경자 의장님과 하루 종
일 심사해주신 안춘선, 김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님들, 정성껏 행사를 준비해주신 의회사무국 강문성 팀장님,
김미나 주무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
니다.

아무쪼록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해를 더할수록 더욱 빛나
고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의정
부시 의회와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을 가슴에 새기며



장수봉 의원

별써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일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지난 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서야 할지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공의를 위해서 사심 없이 헌신하는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선다면 아무런 연고나 바탕 없이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또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국내 최고라 평가받는 대기업에서 30여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서서 제 2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일까 여러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였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려 하느냐 제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적합한가하는 질문도 구하였습니다.

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꿈을 꾸니다. 어릴 적 집안의 가난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졸업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여 피나는 생존경쟁을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항상 사고의 끝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선출직에 대한 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운명처럼 시의원라는 직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거 생존을 위해 생활 최전선에서 죽기살기로 경쟁을 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선출직에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야할 가치와 행동준거는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시민의 일자리, 시민의 교통, 시민의 교육, 시민의 복지 등 모든 일의 중심에 반드시 시민을 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민과 함께 땀 흘리고 봉사하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에는 앞에 서겠으며 모든 시민의 혜택을 받는 자리에는 마지막에 서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면 앞장서 가겠고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전후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라는 미명하에서 군사기지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살아왔고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43만 온 시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의정부가치 향상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젠 올바른 뜻을 지닌 7대 시의원동료들과 그리고 시 집행부 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해야 합니다. 밤을 벅삼아 지내며 연구하고 학습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심을 내려 놓고 시민들께서 내려주신 지엄한 명령을 가슴에 담고 행복과 희망을 향한 불길을 훨훨 타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청빈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효과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의원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도 시민 눈높이에 맞추며 절약하겠습니다.

선출직에 들어선 후 2년차를 맞는 지금,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소의 뿔처럼 사회정의와 시민의 가치를 목표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불의와 부정에는 추상처럼 스스로 엄격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친숙하며 섬기는 자세를 지니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새로운 시작



김이원 의원

영원한 오늘이 없듯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결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에서 출발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굳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뛰면서
일등 시민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희망으로 채워 넣듯이
상처받고 메마른 것들을 치유하며
바르고 올곧게 가는 길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깊고 울림을 주는 일꾼으로서
의정부의 백년대계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월 2일 아침 현충탑 신년 참배를 마치고 오전 10시 의원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무식을 개최했다.



1월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김훈동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내방한 적십자 관계자들과 금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대만 신죽시 국립 신죽고급상업학교 황카이청 교장과 일행이 2월 10일 의정부시의의회를 방문하여 최경자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3동 대형화재사고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의정부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재난종합상황실을 2월 10일 방문하여 대형화재사고 수습에 노고가 많은 상황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5월 19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시의회 의원 13명 일동은 호원IC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6월 6일 오전10시 자일동 현충탑 광장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6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의회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예방대응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종식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 메르스 예방 및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오전 9시부터 최경자 의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 자랑스러운 얼굴들



3월 30일 여주썬밸리호텔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이 지역 현안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안지찬 의원



6월 3일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열린 『제64차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의정활동 분야에서 최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정선희 의원



6월 26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으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창립 12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부시의회 구구희 부의장이 기초의원 부문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구구희 의원

의정부소식

2015년 01월 02일 (금)
지역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시의회, 한파속 연탄나르기 봉사활동 펼쳐



경기북부포커스

2015년 01월 14일 (수)

의정부시의회,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채택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에게 송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1월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시

아주경제

2015년 01월 02일 (금)
지역

의정부시의회, 올미년 사무식...최경자 의장 "신뢰 받는 의회 만들 것"

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경기북부시민신문

2015년 01월 19일 (월)
종합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성금 기탁, 각 기관 재난 상황실 위문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17일 경의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에 설치된 의정부3동 아파트 화재

의정부뉴스

2015년 01월 19일 (월)
종합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아주경제

'제2의 어린이집 폭탄' 지 간담회

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폭행 사건과 같은 어린이집 내 아동 학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어린이집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의원들은 의정부시 보육의 전반적인

방안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은 오는 28일에도 관내 보육사

계획이다. 관내형 자치행정위원장은

경기북부시민신문

2015년 01월 21일 (수)
종합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부3동 화재피해 지원 위한 빠른 행보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

들의 치료비용 관련, 긴급복지지원법에

정착위원회를 긴급의 소급, 치료비용 수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 검토하기로 하

치료비 부담 지급 보충안'을 신속히 가결

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

경기도 시군의 의정협의회에 건의해

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립어린이

소방시설과 비상대피로 등 화재에 대비한

차별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사고예방을 위

여 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집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에

회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아울러 우리의 아이들을 믿고 어린이

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원일보

2015년 01월 30일 (금)
종합

의정부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다뤄

회한다.

금번 회

부터 5

2월 6일

거친 조

특히, 군

도한 자

도시건

지조례

경원일보

2015년 02월 02일 (월)
종합

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 화재발생 취약건물 소방관리 실태 대책마련 촉구



조금석 의원이 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동 화재사건에 대하여 화재발생 취약건물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금석 의원은 먼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첫째, 제철시장의 소방시설의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화재시 경로당에 갇힌 어르신들이 투척용 소화기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을 문

제경으로 삼았다.

이에 "조금, 현재 조성중인 반목2지구내 불법 빌 초개지는 향후 큰 피해를 키울수 있다"고 서적하

며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금석 의원은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를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들

이 뜻을 모아주길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북부포커스

2015년 02월 04일 (수)
종합

의정부시의회, 의정부 화재 안전시설 관리 실태조

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구구회 의원 대표발의, 12명의 의원 공동발의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예정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정부3동 화재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최경자 의장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화재 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

2015년 06월 01일 (월)
종합

의정부시의회 김의원 의원, 행정동.관할구역 불일치 지적

5분 자유발언 통해 "새우편번호 제도 기존 적용하면 행정구역 개편 원활할 것"



경기북부포커스

2015년 06월 01일 (월)
종합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국가 지원 촉구

"열악한 재정에 지방채 발행은 미봉책, 국비지원 지침 관계법을 재정비해야"



아주경제

2015년 06월 03일 (수)
지역

'나도 의원이자' 의정부시의회, 자유학기제 의회 체험 프로그램 열어

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의정부시의회, 메르스 예방 및 시민 홍보 캠페인 실시

경기동북부 취재본부 최민영 기자 snakorea.rc@gmail.com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일 메르스 예방 및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제공=의정부시의회] 최민영 기자 (경기동북부-서울뉴스통신) 최민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메르스 예방 및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메르스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10여명과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포커스

2015년 06월 23일 (화)
지역

의회의원, 경기

도모한 공로



아주경제

2015년 06월 30일 (화)
지역

<제7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1주년> '시민 눈높이 맞는 새로운 의회상 구현' 성과

"열악한 재정,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5년 재임-정책 추진"

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해왔으며, 5년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의정부신문

2015년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고 총동창회와 간담회

노경민
blumr6400@paran.com

의정부시의회의(의장 최경자)는 6월 17일 의정부고등학교 총동창회와 간담회를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경자 의장을 비롯하여 구구회 부의장 박종철 운영위원장 권원장 안지환 도시건설위원장 임호석 의원이 참여하였고, 의정부고 총동창회에서 장희 이상훈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먼저 인사말에서 이상훈 총동창회장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시간을 내셔서 간담회를

인천일보

2015년 06월 28일

의정부시의회, 초등학교 대상 제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의정부시의회, 초등학교 대상 제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회의실에서 안병을 시장 및 시의원, 관내 새말초등 14개 초교 152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학생이 꿈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만들기'라 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초등학생의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한 활동교류 실천 조례안'이 고 등임초교 최우수상, 동오학교 발목초교, 신동초교가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일보

지역발전 헌신 유공자 표창-구구회 의정부시의회 의정대상... 안전사고 재발방지 공로 인정

김종필 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의회 INTRODUCE UCC

의회연혁

대 수	연 대	연 혁
초대	1991. 4.15	초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제2대	1995. 7.13.	제2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제3대	1998. 7. 9	제3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제4대	2002. 7. 5.	제4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제5대	2006. 7. 5.	제5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제6대	2010. 7. 1.	제6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제7대	2014. 7. 1	제7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청사현황

위치 :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청사 준공일 : 2003. 7. 26. ※ 입주일 : 2003. 9. 1.

총면적 : 3,548.6㎡ (1,075평)

의회기구표



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회의 지위

가.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말하며, 의회는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개정, 자치단체 운영 등 그 지역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와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결사항을 열거하는 개괄식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자율권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라.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마. 청원수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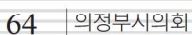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바. 서류제출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및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답변가능)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의회 카카오토리 아시나요?

KakaoStory 친구, 채널, 해시태그 검색



2015년 8월 1일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의정부시의 따뜻한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의 따뜻한 소식’이라는 명칭으로 카카오토리 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토리 정식 개설에 앞서 시의회는 2015년 4월부터 7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정례회 결과, 5분 자유발언 등 시의회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공감을 얻고자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의정부 시의회의 카카오토리 주요 콘텐츠 크게 세가지!

첫째,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등과 같은 의정활동 소식과 함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초등학교 모의의회 대회, 중학교 자유학기제 소식 등을 동영상과 함께 전해주어 의회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시의회는 의정부 자원봉사자의 ‘사랑앓 집고치기’, 노인지원 사업의 일환인 ‘마음 쉼터’ 카페 등과 같은 따뜻한 소식과 ‘낙양물사랑공원 개장’, ‘가능1동주민센터 이전 안내’ 등 의정부소식을 알기 쉽게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 제공 함께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의정부 시의회에 카카오토리에 오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언어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콘텐츠 내용을 보면 ‘메르스 꼭 알아야할 10가지’,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정리하기’ 등과 같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옷걸이를 이용한 바나나걸이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여름철 초파리 예방 방법 등’과 같은 생활의 팁을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주 수요일에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와 같은 마음의 힐링을 위한 글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 여러가지 따뜻한 소식을 카카오토리로 받고 싶으면 카카오토리 ‘친구 찾기’에서 ‘의정부시의회’로 검색해서 소식받기를 하면 끝!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

9회 87일(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7회 47일)

연번	회기별	기 간	예 상 부 의 안 건	비고
1	제240회 임시회	1. 13. (1일간)	○의정부3동 화재 사고 현황보고의 건 등	회기누계 -임시회: 1
2	제241회 임시회	2. 2. ~ 2. 9. (8일간)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9
3	제242회 임시회	3. 18. ~ 3. 20. (3일간)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12
4	제243회 임시회	4. 15. ~ 4. 17. (3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15
5	제244회 임시회	5. 18. ~ 5. 29. (12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27
6	제245회 제1차 정례회	7. 6. ~ 7. 17. (12일간)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결산안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12 -임시회: 27
7	제246회 임시회	9. 7. ~ 9. 11. (5일간)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12 -임시회: 32
8	제247회 임시회	10. 16. ~ 10. 30. (15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채택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13 -임시회: 47
9	제248회 제2차 정례회	11. 20. ~ 12. 17. (28일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40 -임시회: 47

※ 주)실제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회 방청(방문) 안내

의정부시의회의회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진행을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의회방청(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 참여마당 방청견학에서 온라인 신청
2. 방청일자에 신분증 제시
3. 방청권 교부받아 방청
※단체는 사전신청

문의사항

의정부시의회의 의회사무국 : ☎(031) 828 - 2256~2258



의정부시의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Tel. 031)828-2257 Fax. 031) 828-2525

<http://www.ujbcl.go.kr>